

잘 살아 보세

나 운영

새마을 가요 중에 「잘 살아 보세」라는 노래가 있다. '한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부귀영화도 우리 것이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...' 이 얼마나 건설적이나? 그러나 신문마다 대문짝만한 크기로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도 잘 살던 사람들이 그만 부정축재로 걸려 들어 비난의 집중이 되곤 하니 이 어찌 된 일일까?

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들은 살림살이에 허덕이는데 역대 사장님들 중에는 밀수, 탈세, 재산 해외 도피 등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아 보다가 결국 탄로가 나고야 마니 이 또한 어찌 된 일일까?

이것은 분명히 '잘 살아 보세'의 참뜻을 저 버리고 사리사욕私利私慾은 물론 사리사욕邪利邪慾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 이웃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해치는 일을 감행, 강행하는 까닭이 아닌가?

공생공사니 공존공영이란 말이 있듯이 바른 마음, 착한 마음을 먹고 부지런히 일하여 서로 힘을 모아 도와가며 잘 살아 보려고 하지 않고 남과 자기 자신마저 속여 가며 남을 해치고 부정한 방법과 지능적인 수단으로 나 혼자만 잘 살아 보자고 하는 데서 저질러진 과오가 아닐까?

어차피 인생이란 공수래 공수거이니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품지 말자. 남을 시기, 질투, 모략, 중상하지 말자.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돕자.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제 분수대로 살아가자.

부정식품, 유해 약품의 양산으로 또는 무역이나 교육, 복음 전도 등의 미명 아래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부 사이비 사업가들이여! 민족 시인 윤동주의 「서시」처럼 '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' 바라면서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살아보자. 바르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자, 사필귀정事必歸正(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.)이란 말이 있는데 나는 '사事'를 '사那(바르지 못함)'로 바꿔 쓰기를 좋아한다. 부정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 비록 가난하더라도 바르게 좀 속 편히 살아 보자.

<동아일보 1977. 1. ?>